

# 사회사업 실천의 이념과 비전1)

복지를 해체하고 놓아주어  
사람 사이 인간 세상의 자연스러운 살림살이가 되게 하자!  
자연주의 복지 공작소 dewelfare.net의 anarchist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최선의 서비스, 최선의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황(situation, context)에 따라 다르고, 때와 장소, 문제와 욕구,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다르므로 다원화된 서비스, 다양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다원주의, 절충주의, context-sensitive eclectic approach,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되, 제 개인적인 복지이념(Natural-fare)에 기반하여 사회사업 실천의 패러다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1. 복지는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invisible welfare

복지 서비스는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복지(봉사·구조·구제)라는 이름으로 복지가 드러나 보이게 하면, 고맙기는 하지만 인격과 자존심의 상처, 스티그마, 소외, 주체성과 자율성의 약화, 의존성과 추한 모습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너무도 쉽게 열등한 존재로 분류되어 버리고 사랑의 대상으로 객체화되어 버립니다.

보이는 복지 앞에서 인격적 존재로 품위있게 살아가기가 너무도 어려워져서, 그것을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주는 사람은 부모같이 행세해도 되고 받는 사람은 애같은 노릇을 하는 불평등한 관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권위에 머리를 숙이고 sick role을 해야만 하는 구차한 예측 관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특별하게 서비스하는 것들이 성숙한 사회에서는 보통의 법과 제도, 보통의 시장, 보통 사람이 이용하는 서비스와 제품속에 보이지 않게 들어 있습니다. 전통적 공동체에서는 평범한 이웃으로서의 인간 관계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었습니다.

어쩌다 특별행사로 봉사활동을 펼치거나 후원물품 전달하면서 사진 찍는 등 생색쓰는 사례는 말할 것도 없고, 취미교실, 사회교육, 등산, 여행, 스포츠, 의료, 물품 제공, 가사지원, 급식, 생일잔치, 이미용, 밀반찬 등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위 복지 서비스들은 대부분 특별히 복지랄 것도 없는 것들입니다.

보통의 생활속에 평범한 활동으로 녹여내야 할 것들을 복지관에 가져다가 특별한 것인양 복지라

---

1) 여기에 쓴 것은, 1987년 장애인복지관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복지인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한번도 변하지 않은 한결같은 이념과 비전, 바로 그것입니다.

시대적 상황과 경향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나름대로 마땅히 여기는 바에 기초하여 궁극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오늘과 내일을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social engineer의 자세로 일관해왔습니다.

이 글의 실천방법이 결코 꿈같은 이야기도 아니고, 먼 미래의 이야기도 아니며, 제도가 바뀌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현장에서 시도했고 실천해온 것들입니다. 저는 초보 사회복지사로서 처음 맡았던 일도 이러한 이념과 방법으로 풀어가려 노력했고, 여러 동료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지역사회속에서 지역사회로써 지역주민들의 생활로 풀어내려 했던 실천사례들을 알고 있습니다.

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 2. 복지는 어디에나 두루 있어야 합니다. ubiquitous<sup>2)</sup> welfare

복지가 복지시설에만 있지 않고 사람사이 인간세상 어디에나 있는 살림살이가 되도록 하자, 복지를 복지시설에 집어넣기보다 세상에 풀어내기를 힘쓰자, 어느 곳이나 복지가 두루 스미어들어 보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기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지는 주로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대상자들을 그 안으로 가급적 많이 끌어들이어 수용,보호,치료,교육,구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ubiquitous welfare는 복지시설속에 복지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속에 복지를 풀어내고 생활속에 복지를 녹여내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세탁소, 가게, 식당, 시장, 병원, 약국, 공장, 사무실, 은행, 목욕탕, 이미용실, 학원, 학교, 관공서, 노래방, 당구장, 오락실, 골프장, 공원, 놀이터, 대중교통, 미디어, 건물, 책상, 교량, 차도, 인도, 전화, TV, 인터넷, 컴퓨터, 싱크대, 자동차, 출입문, 산악회, 기원, 조기축구회, 낚시동호회 등

이렇게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보통의 가정과 일터와 인간공동체와 제품들 속에 복지기능을 내장하거나(embedded welfare) 복지적 가치를 부가하는 것, 나아가서 전문적인 사회사업 실천과 연계하여 사회복지 가치 네트워크(welfare value chain)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비쿼터스 복지의 요체(要諦)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회사업을 정의하기를, '복지를 세상속에 녹여내고 생활속에 풀어내어 사람사이 인간세상의 자연스러운 살림살이가 되도록 공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sup>3)</sup>

한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물과 시내에서 마음껏 물을 마시고 씻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수지에 물을 가두어 수도꼭지에 돈을 바쳐야만 쓸 수 있습니다. 우물은 마르고 시내는 죽어갑니다.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하나 세상에는 물이 없습니다.

사회복지 또한 그러합니다.

세상에 두루 있어야 할 복지(ubiquitous welfare)를 사회복지시설 혹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전유물인양 독점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과 민간자원을 끌어모아 복지 저수지, 곧 복지시설에 집어넣

---

2) ubiquitous : 어디에나 있는, 편재(遍在)하는

3) 좁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란 이러한 사회사업 결과로서의 사회적 이상(理想)이고,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직업, 다양한 노력의 결과인 사회적 이상(理想)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복지입니까? 우리가 풀어내고 녹여내야 할 복지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황(situation, context)에 따라 다릅니다. 때와 장소, 문제와 욕구, 처지와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사회사업가가 풀어내고 녹여내야 할 복지도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며,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복지도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최소한 의식주는 해결되어야만 복지라고요?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복지를 결정하거나 재판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복지라는 이름의 수도꼭지를 통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니 그곳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존심을 갖다 바쳐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위 사회복지 실천가들은 세상 우물과 시내를 살리는데 관심이 없거나 적어도 그 일을 우선순위에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세상 우물에 물이 스미어지고 시내에 물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보통사람들의 보통의 직업속에서 복지가 스미어지게 해야 합니다. 보통사람들의 공동체속에 복지가 흐르게 해야 합니다.4)

생활속에 복지를 개발하고 확산시키고 융합해내야 합니다. 이제는 복지 저수지와 상수도, 급수대를 만드는데 공들이지 말고, 보통 사람들의 삶속에서 그들의 직업속에서 복지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되도록 공작(工作)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5)

4) welfare-embedded service : 대중교통복지, 세탁소복지, 목욕탕복지, 야쿠르트복지, 미디어복지, 커피숍복지, 문구점복지, 자전거포 복지, 우체부 복지, 생선가게 복지, 119 복지, 경비원 복지

“우동 한그릇”(구리 료헤이 저, 청조사) 책에 실린 우동가게 북해정의 이야기와 “마지막 손님”(구리 료헤이 저, 청조사)에 실린 제과점 춘추암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우동가게복지, 제과점 복지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눈보라치는 설달 그믐날 밤 일본 삿포로의 우동집 “북해정”에서 있었던 가슴 뭉클한 감동 스토리! 북해정 우동가게의 주인을 통해 복지인의 감성과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북해정 주인의 사랑과 지혜, 여기에 사회사업의 방법론과 기술을 더한다면 훌륭한 음식점 복지가 될 것 같습니다.

5) 복지를 내장(內藏)한 생선가게, welfare-embedded fish shop

생선가게 복지라..

이는 생선가게의 상품과 서비스, 인간관계, 직업속에서 복지적 기능을 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선가게에 복지를 내장하여 그들의 자연스러운 삶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곳곳에 복지 기능이 내장된다면, 필요할 때 언제든 특별한 사회사업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나는 이것을 영어로 ubiquitous welfare value chain 이라고 한다.

무엇이 복지 기능이나? 어떤 것이 복지나? 음...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는가?

생선가게 주인이 (자비량) 사회사업가라면, 생선가게를 함에 있어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사업계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 가치, 자원을 적용하여 계획적으로 개입하는 일체의 행위가 다 생선가게 복지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생선가게 복지의 조작적 정의)

생선가게 주인이 사회사업가가 아니고 그 하는 일을 통해 복지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사회사업가가 공작하는 경우라면, 사회사업적 필요에서 출발하되 주인의 처지와 지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겠지만, 이때도 역시 복지관에 끌어들여서 복지관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선가게에서 혹은 생선 소매업이라는 직업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이 되도록 공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사업을 하기 위한 자원체계로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편적) 서비스의 주체가 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가 장애인 혹은 독거노인에게 생선이나 생선반찬을 배달해주는 사업의 핵심 행동체계로 참여하는 것은 어떨까? 지역의 생선가게 연합회로 하여금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에서 전화를 하면 한두마리의 생선은 언제든 무료로 공급하는 사업은 어떨까? 특정 이웃과 생선 요리를 나눠먹고자 하는 고객에게 구입한 생선만큼 덤으로 주는 기획세일은 어떨까? 그 비용은 생선가게 주인이 전액 혹은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고, 복지관의 사업비나 외부 재원으로 충당할 수도 있겠지?

시어머니와 며느리, 할머니와 손녀 등 세대간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이벤트... 생선가게에서 직접 진행할 수도 있고, 이 생선가게에서 생선을 공급해주는 단골식당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겠지? 강사를 모시고 함께 즐기는 요리 마당도 좋겠고, 가족 혹은 단체대향 요리경연도 좋지 않을까? 특별한 날에는 식당과 협동으로 조손가정 파티를 할 수도 있겠고... 동네 경로 잔치에 한 부분을 담당할 수도 있겠고...

사람들을 끌어들이 우리의 복지사업을 하기보다는 그들의 직업속에서 복지를 구현하도록 공작,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복지사업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6)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

전통적 인간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져왔던 복지 기능들이 사회보장 제도와 복지시설로 급속히 빨려들어가는 현상,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전통적 공동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문제와 다양한 욕구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정부와 전문가들이 대신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겁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덮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난 몰라. 정부와 전문가들이 있잖아” 이렇게 사회복지를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거나 혹은 특별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 역할을 복지제도와 복지시설, 국가와 전문가에게 떠맡겨버리게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

때때로(여러 생선가게들이 연합하여) "원산지"를 여행하거나 어업 박물관을 견학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생선가게 주인에게 계몽자료 및 복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고객과의 대화기법이나 고객관리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복지기관과(잠재적, 현재적) 클라이언트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problem-identification system 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

자비량 사회사업의 실천현장이나, 공작의 대상이나에 따라 그 활동의 방식과 수준이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생선가게를 하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존재가치로 여기는 "기업가 정신"이 있다면 생선가게에도 자연스럽게 복지가 내장될 것이다.

생선가게 주인이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이라면 그 서비스의 내용과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까?

끊임없는 학습, 연구를 통해 생선가게 서비스를 개선, 개발, 혁신하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자기 사업에 근심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일을 통해 복지를 구현하는 (자비량)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통의 직업을 가지고서 자신의 본업에 근심할 뿐 아니라 나아가 남을 돕기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 전문지식과 가치, 기술, 자원을 적용하여 개입하는 사람, 자비량 사회복지사! 생선가게에서 활동하는 자비량 사회복지사를 그려본다.

6) 복지관에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위한 등산프로그램을 맡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을 CO Worker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대학이나 고등학교의 등산동아리들, 지역에 있는 각종 산악회를 찾아다니고 이들을 계몽하고 행동체계에 끌어들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장애인 등산 회원 모집과 관리의 복지관에서 하되 등산동아리나 산악회로 하여금 석달에 한번씩만이라도 장애인과 함께 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할 것입니다. 협조하는 산악회가 12개만 되어도 매주 장애인 등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요. 장애의 정도나 적응력을 고려하여 어떤 회원에 대해서는 적당한 시기에 케이스 관리를 종결하고 완전히 지역사회에 통합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등산 장애인 등산하고자 사람과 등산 환경간의 역기능적이거나 부적응적인 관계 혹은 상호작용을 의미하고, 이것을 완화 혹은 해결해주려는 노력, 즉 등산 복지란 등산하고자 하는 사람과 등산 환경과의 관계나 상호작용을 적응적이고 기능적인 것이 되도록 공작,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등산동호인들을 봉사자로 끌어들이 우리의 복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직업속에서 복지를 구현하는 자연스러운 삶이 되도록 공작,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nvisible, ubiquitous, universal, normal한 복지는 이와같이 우리의 복지사업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되도록 할 때라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 공동체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와 욕구들이 생겨났고, 산업화 도시화 전문화로 사회체제와 생활방식이 바뀌었으니 국가와 사회가 개입할 필요가 있었을테지요.

그러나, 정부와 전문가들은 front end welfare center로 전면에 나서서 아예 대신해버리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후방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복지의 주체였던 사람들을 대상자 내지 보급부대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자연적 복지기능의 소멸을 재촉하고 인위적 제도와 서비스로 대체하는데 앞장서기까지 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덮어버리고 형광등으로 바꾸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고 쇠막대기로 바꾸었습니다. 형광등과 쇠막대기로 대체한 세상을 더 좋게 여기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사회복지사는 약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받쳐주고 회복시켜주는 존재이지, 약한 것을 허물어버리고 대체하거나 대신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선의(善意)와 좋은 능력을 잘 살려내고 복돋아주는 존재이지, 그것을 버려두거나 퇴화시켜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돋우고 상한 갈대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제 다시 세상 사람들을 복지의 전방에 내세워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직업, 그들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복지기관과 사회사업가들은 뒤에서 공작하고 지원하는 back end enabling center 로 역할을 바꾸어야 합니다.

#### 주체 회복

- ① 보통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생활에 속하던 것들이
- ② 전문가들의 특별한 활동으로 전유되었다가
- ③ 보통사람들의 생활속으로 다시 돌아와서 전문가와 보통사람이 함께 행하거나 함께 누리기도 하며 보통사람들의 평범한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들이 가져갔던 것을 보통사람들에게 돌려주고 모든 사람에 의한 모든 사람의 것이 되도록 생활속에 풀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술이 그러합니다. 먼 옛날 음악이나 미술은 보통사람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특별한 재능을 지닌 일부 전문가들의 직업으로 분화하더니 사람들은 가수의 노래를 듣는 청중이 되었고, 화가의 그림을 감상하는 관객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다시 음악과 미술을 자신들의 평범한 일상으로 가져왔고, 전문가들도 이제는 생활음악, 생활미술로 풀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에서도 청취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졌고 TV도 그렇습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는 보통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생활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신체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스포츠를 선수들에게 맡기고 사람들은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엘리트 체육 (elite sports)이 스포츠의 주류를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포츠를 보통사람들의 것으로 돌려주려는 생활체육 Sports for All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예술과 스포츠 분야에 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학, 요리, 언론, 발명, 통신, 종교,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져갔던 것을 보통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보통사람들을 주체로 참여시켜서 함께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본래 사람들 개개인의 자원에 속한 것이었고 가족, 친지, 지역사회 등 공동체의 연대와 상호부조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돌려줄 수 있는 것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대부분은 지역사회와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보통사람들의 복지적

---

7) Subject: **전문가들에게 고함 - 전문가들이여 내 삶을 돌려주세요.**

Date: Tue, 17 Sep 2002 00:33:33 +0900

From: "김동찬" <naturalfare@welfare.or.kr>

Organization: 경북대사회복지97학번

Newsgroups: camp.8th, tour.3rd, tour.4th, welfare.freebbs2

당신은 전문가인가?

당신은 교사인가?

나는 당신 덕분에 내 아이를 마음놓고 학교에 보낸다. 당신이 없었다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아이와 함께 지내며 일상 예절부터 생계기술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야 할텐데, 당신 덕분에 아이를 가르쳐야 하는 수고를 덜었다. 이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학교에는 교육전문가인 당신이 있으니 잊은들 어떠한가?

당신은 의사인가?

나는 당신 덕분에 내 몸을 마음대로 놀린다. 당신이 없었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에 항상 귀기울이고 몸의 작은 변화에도 경계하고 조심할텐데, 때때로 정기검진을 해주는 당신 덕분에 건강고민이 줄었다. 이젠 큰 탈이 아닌 이상 내 몸이 보내는 위험신호를 느끼지 못할 만큼 무디어졌지만, 내몸의 전문가인 당신이 있으니 무던들 어떠한가?

당신은 사회복지사인가?

나는 당신 덕분에 내 일터에 좀더 집중할 수 있다. 당신이 없었더라면 아내와 노부모, 아이와 장애를 가진 내 이웃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 위해, 많은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고민해야 할텐데, 당신 덕분에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 수고를 덜었다. 이젠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일이 서툴지만, 생태체계적관점의 관계 전문가인 당신이 있으니 서툰들 어떠한가?

당신은 연예인인가?

나는 당신 덕분에 포근한 쇼파와 돌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당신이 없었더라면 내 일상을 노래로, 춤으로 표현하며 친구들과 나누기 위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움직였을텐데, 당신 덕분에 쇼파에 안겨 마냥 웃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젠 일상의 아픔과 즐거움을 나만의 노래와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감흥은 느낄 수 없지만, 연예계의 전문가인 당신이 있으니 모른들 어떠한가?

당신은 어떤 전문가인가?

당신 덕분에 나는 내 삶의 또 한부분을 내 놓을 수 있게 되었구나? 나는 내 삶을 돌아본다. 내 삶은 가벼워졌는가? 더 즐거운가? 전문가 당신 덕분에이다.

마냥 열심히 일하는 전문가를 떠올려봅니다.

교사는 가정교육의 감소와 세대차에 어떻게 만나야 할지 막막해져 가는 학생들 앞에서, 의사는 끊임없이 치료해도 줄지 모르는 환자들 앞에서, 사회복지사는 열심히 일하지만 즐겁지 않는 자기 자신과 클라이언트 앞에서, 연예인은 날마다 더 큰 자극을 추구하며 굳어져가는 표정의 시청자 앞에서 하루 하루 힘이 빠져갑니다.

더 열심히 일하는데, 자신의 전문 영역은 더욱 확고해져가는데, 세상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는다면...

전문가는 사람들의 삶속에서 일부분을 가져와서 전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좀더 잘

능력, 복지적 삶을 회복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다시 복지의 전방에 내세워 주체적 프로슈머가 되도록 공작·지원해야 합니다.

이제는 복지의 댐과 같은 welfare center 로 행세(行勢)하지 말고, 세상속에 복지의 시내가 흐르게 하는 enabling center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 사회 모든 삶의 영역에 복지적 가치를 부가하고 복지 기능을 내장하고, 그것을 운용하는 welfare embedded network, ubiquitous welfare value chain의 본부가 되어야 합니다.

복지시설에 복지를 모으려 하지 말고 세상에 복지가 흐르게 하자, 이것이 바로 ubiquitous<sup>8)</sup> welfare의 요체입니다.

---

느낄 수 있도록 예민한 감각을 키워주는 사람이 아닐까요?

교사는 누구나 학생들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가르칠 수 있는 영광을 누리도록 돕고, 의사는 누구나 자신의 건강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복지사는 누구나 나와 함께 누리며 관계 맺고 배려할 수 있도록 돕고, 연예인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노래하고 춤추며 맘껏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수십년동안 갈고 닦아온 자신의 전문성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속에 녹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전문가라 할텐데...

전문가여!

당신이 있어 나는 참으로 든든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있어 아이를 가르키고, 건강을 보살피고, 사람들과 관계 맺고, 마음껏 표현하는 것을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일로 생각해버릴까 걱정입니다. 전문가들의 영역이기 전에 내 삶의 일부임을 망각할까 걱정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전문가라면, 당신의 영역을 진정으로 넓히고 싶다면, 당신의 전문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당신이 더 넓은 세상을 꿈꾼다면....

당신의 그 큰 능력을 당신의 영역에 묶어두지만 말고, 조금만 시간을 내어 세상에 풀어놓을 수 없나요?

저 쪽 옆에서 강너머 불구경 하듯, 글쓰는 것을 어려운 일로 만들고 있는 작가여, 정치적 토론을 밀실로 옮기고 있는 정치가여, 성충권밖에서 컷속말을 나누는 과학자와 기술자여. 당신도 전문가라면, 나를 보시오. 당신이 이룬 것들 앞에 내 무한한 능력을 잊어가는 나를 보시오. 내 삶을 돌려주세요.

세상속에 녹아드는 사회복지, 산소같은 사회복지사를 꿈꾸며

## 8) 유비쿼터스 컴퓨팅 Ubiquitous Computing

지금까지의 정보혁명은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사물과 기능들을 전자 공간속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계산기와 필기구, 라디오, TV, 만화, 신문, 책, 비디오, 관공서, 도서관, 서점, 백화점, 은행, 주식거래, 교육, 의료, 사무실 등 물리공간에 존재하는 것들을 컴퓨터와 PDA, 핸드폰 등 전자공간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자공간은 확실히 컴퓨터로 보이는 특별한 정보통신 기기에 연결된 공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정보혁명이 물리적 공간을 컴퓨터속에 집어 넣는 것인데 반해,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은 컴퓨터를 물리적 공간속에 집어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도로·교량·터널·항만·빌딩·화분·냉장고·에어콘·선풍기·보일러·전자레인지·TV·라디오·밥솥·세탁기·구두·허리띠·양복·시계·안경·자동차·창문·출입문·접수대·도서관, 애완동물, 화장실 변기 등

물리적 공간에 존재하는 제품이나 동식물, 구조물들에 칩과 센서들을 심고 정보기능을 내장하고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특별히 컴퓨터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어디에서나 컴퓨터가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3. 보통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복지여야 합니다. universal welfare

“복지시설에서 따로”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보통사람들의 보통의 것들속에 복지기능을 내장하여 (embedded welfare) 보편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쓰는 것을 함께 이용하고 보통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함께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 사회체제들속에, 보통의 서비스와 제품속에 복지기능을 내장하여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각장애이용 TV를 따로 보급할 것이 아니라, 모든 TV에 자막수신기능을 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용 공중전화를 따로 설치하지 말고, 모든 공중전화에 턱을 없애고 높이를 낮추고 보청기 호환 기능과 소리 증폭 기능을 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휠체어 장애인, 키 작은 아이, 허리 꾸부러진 노인, 가는 귀 먹은 사람, 청각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두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들 때 장애인용 페이지를 따로 만들지 말고, 모든 페이지를 장애인도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장애인용 도서관을 따로 만들지 말고 모든 공공도서관에 점자도서 녹음도서 서비스가 있어야 하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거노인 안부확인용을 위해 따로 봉사자를 쓰기보다 우체부나 순찰담당 경관의 활동에 끼워넣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복지시설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따로<sup>9)</sup>, 특수하게, 구분하여<sup>10)</sup> 직접 서비스하는 방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복지시설보다는 지역사회에서<sup>11)</sup>, 전문

---

9) 복지시설들에서 착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지극정성으로 친절하게 생활자들을 돌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옳은가요?

사실상 격리·감금과 다름없는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보통사람들과는 다르게 분류되거나 분리되어 살아가는 클라이언트가 얼마나 많으며,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다시 나올 수 없는 '죽음'으로 가는 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보통의 지역사회, 보통의 공동체속에서 남들과 어울리고 사랑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생활자들의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짓밟히고 있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10) 사람들이 선의를 가지고 남을 돕고자 하는데, 나는 그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또 좋게 여긴다. 문제는 자원봉사는 이름으로 사람관계를 왜곡시켰다는 것이고, 그런 왜곡을 주동한 장본인들 중에 바로 사회 복지사들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어릴 적 고향을 생각해보자.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가 어떠했는지 생각해보자. 물론 예전에도 도움을 주면서 행세하고 도움 받는 것이 구차스러웠던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자연스러운 보통사람의 관계로 "함께" 살았고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특별한 대상으로 분류,분리해놓고서, 자신과 관계없는 (뚓 보이는) "구역"으로 따로 떼어놓고서, 자신과는 다른 계층으로 (때로는 자신보다 열등한 존재로) "차별"하여서, 우리가 아닌 그들로 대상화해놓고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아닌 특별한 활동의 대상으로 구별하고서, 이렇게 왜곡된 관계속에서 "봉사"라는 이름으로 도화주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게 문제이다.

문제의 중심에는 시설과 복지관의 사회사업가가 있다.

세상속에는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나, 사회사업가에게 "걸려든" 봉사자들과 대상자들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인위적인 관계로 서로 못할 짓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바로 사람관계를 왜곡하는 장본인들이다.

11) 어느 복지관에서는 이미용실과 무료진료실을 없애버리고 동네의 이미용실과 병의원을 섭외하여 대상

가보다는 보통사람들이<sup>12)</sup>, 복지라는 이름보다는 평범한 생활로써 자연스럽게 복지를 구현하도록 해야 합니다.<sup>13)</sup>

#### 4. 복지는 평범해야 합니다. normalization

편의상 따로 서비스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장애인용을 비장애인용과 다르지 않게, 수급자용을 일반 이용자용과 다르지 않게, 시설생활자용을 일반가정용과 다르지 않게, 할수만 있다면 보통사람들의 것과 같거나 비슷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요즘 생활시설에서는 주거환경과 활동공간, 음식, 의복, 생활용품, 생활방식 등을 최대한 보통사람들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대형 기숙사를 일반 가정과 비슷한 소숙사로 바꾸고 있습니다. 똑 같은 식판 대신 보통 가정처럼 다양한 식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sup>14)</sup> 아동시설에서도 옷이나 신발 등을 구입할 때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각 어린이에게 공평하게 돈을 주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사되, 받은 돈보다 비싸면 자기 용돈을 보태서 사게 합니다. 노인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재래시장에 모시고 갈 때 보통 노인들처럼 두어사람씩 소규모로 갑니다. 연극을 볼 때 극단을 초청하거나 집단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처럼 시내 극장에 삼삼오오 소집단으로 가게 합니다.

광주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성요한정신병원은 Normalizaion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는 모범 병원입니다. 의복이나 언어에 있어 환자와 의사의 구별이 없고, 울타리와 철장안에 감금하지 않고 개방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게 하는 곳입니다. 병원을 생활회관(Center for Living)이라고 하고, 폐쇄입원병동을 안집이라 하여 가정적인 치료환경, 보통사람들의 생활환경과 비슷하게 운영합니다.

Normalizaion, 즉 보통 사람들의 방식과 같거나 비슷하게 하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사람들은 동네 친구들, 이웃집 사람들, 고모, 이모, 작은아빠, 큰아빠, 외삼촌, 교회 선후배, 동호회 사람들 등의 관계로 서로 돕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혼자 살지 못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웃이나 친척이나 知인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해서 그를 자원봉사자나 후원자 혹은 결연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대상자, 클라이언트, 케이스라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

자가 보통 소비자처럼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공작,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행해왔던 생신잔치를 없애고, 뷔페 등 동네 분위기 좋은 요식업소가 보통사람들의 생신잔치처럼 해 줄 수 있도록 공작,지원하고 있습니다.

12) 어느 동네 피아노학원은 간판에 “소년 소녀 가장은 무료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빈곤가정 아동들의 사회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복지관에서 피아노교실 등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보통 아이들이 가는 보통의 시설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작,지원하는 것은 어떨습니까? 어느 복지관에서는 청소년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복지관에서 직접 하지 않고 지역내 청소년들이 주로 출입하는 시설의 업주들로 하여금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하도록 공작,지원했습니다. 수영이나 등산, 여행 프로그램도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보통의 서비스 공급자들이 자신들의 직업·생활로써 할 수 있도록 공작,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3) natural, informal, human service

14) 물론 장애상태를 고려하여 특별히 식판을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복지관의 재가대상자들이나 시설의 생활자들은 도움을 받을 때, 봉사꺼리, 일감, recipient, dependent, patient, case, object의 지위에서 애같은 노릇을 하고, 돕는 사람들은 온정적 시혜자, 후원자, 봉사자, 치료자, 교육자라는 지위를 갖고 부모같이 행세합니다. abnormal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때, 특별한 대상으로 분류·분리해놓고서, 보통사람들과 관계없는 (듯 보이는) 곳으로 떼어놓고서, 보통사람들과는 다른 계층으로 (때로는 열등한 존재로) ‘차별’하여서, 우리가 아닌 그들로 대상화해놓고서, 보통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아닌 특별한 활동의 대상으로 구별하고서, 이렇게 왜곡된 관계속에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봉사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그 결과, 다양한 세대, 다양한 연령,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보통의 지역사회, 보통의 공동체속에서 남들과 어울리고 사랑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의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무시당하고, 보통사람들과는 다르게 분류되거나 분리되어 버리는 클라이언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복지사들이 abnormal한 방식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인간관계를 그렇게 abnormal한 것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특별한 전달체계, 특별한 장소, 특별한 방식의 서비스보다 평범한 전달체계, 평범한 장소, 평범한 방식으로써 도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universal welfare는 보통사람들이 쓰는 것을 같이 쓰게 하는 것이고, normal welfare는 부득이 따로 하더라도 보통사람들의 것과 같거나 비슷하게 하는 것입니다.<sup>15)</sup>

## 5.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welfare for all

복지서비스의 보편화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회 전체, 모든 사람, 모든 삶의 영역으로 사회복지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세상과 대중 속으로, 모든 제도와 생활속으로 사회복지의 가치와 혜택이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진정한 복지사회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삶속에 복지가 내장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대학생들에게 자비량 사회복지사가 되라고 권합니다.<sup>16)</sup> 세상속에 들어가 세상을 바꾸어가자

---

15) 동그라미재활원의 가정 - 채광과 조명, 통풍이 뛰어난 정남향 단층 건물, 방벌 가장제도, 가족회의 등 최 대한 일반 가정집과 같은 환경 및 생활방식을 강조합니다. 가정단위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주장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 벤처 사회복지의 진수(眞髓) - 자비량 사회복지사

social work tent maker, unofficial social worker, self-supporting social worker

자신의 생업을 통해 선교하거나, 생계 수단을 따로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을 일컬어 자비량 선교사 (tent mak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회복지에 적용하여 자비량 사회복지사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별도의 생업을 갖고 거기에서 얻은 수입으로 복지활동을 하거나, 또는 자신의 생업 속에서 사회복지의 지식과 기술, 가치, 자원을 적용하여 서비스하는 사람이 자비량 사회복지사입니다.

우리는 일반 시장경제하의 보통의 직업을 가지고서 복지를 구현하는 자비량(自備糧) 사회복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비량 사회복지야말로 벤처 사회복지의 진수(眞髓)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땀과 눈물을 쏟을만한 삶의 목표, 일생을 바쳐 그렇게 살고 싶은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 합니다. 일반 시장경제하의 보통의 직업을 가지고 복지를 구현하는 사회복지사가 되라고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직업이든 바로 그 일을 통해<sup>17)</sup> 복지를 구현하려

다. 미래를 소신껏 설계하고 제 손으로 만들어가는, 창의적이고 주체있는 복지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찾되 복지의 지평을 넓게 하여 온 세상 모든 삶의 현장을 대상으로 찾으십시오. 행정기관이나 복지관, 보육원, 재활원, 양로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직업과 일터가 다 사회복지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직업이든 바로 그 일을 통해 복지를 구현하려는 뜻을 세우십시오. “사회복지 일터”는 무한히 열려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회복지 현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서점이나 식당, 커피숍도 좋고 택시운전이나 우체부 혹은 교사나 경찰, 119구급대, 학원이나 문화센터, 병원, 보험판매원이나 우유배달부, 야쿠르트 아줌마, 아파트 경비원, 세탁소, 슈퍼마켓, 생선가게, 목욕탕, 자전거포, 사진관, 제과점, 비디오샵, 만화가게, 가정주부도 좋습니다.

어떤 분야,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복지를 생각하고 복지를 읽어내며 복지를 꿈꾸는 사람, 그가 바로 복지인입니다. 어떤 분야이든 본인이 좋아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여 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일터”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느 곳이든 우리의 전문 지식과 기술, 가치를 활용하고 구현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사회사업 현장이며, 남을 돕기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전문 지식과 기술, 가치, 자원을 적용하여 개입하는 일체의 행위가 사회사업입니다. 결국 사회사업이란 복지를 세상속에 풀어내고 생활속에 녹여내는 일입니다.

#### 17) 복지를 내장(內藏)한 목욕탕, welfare-embedded sauna

목욕탕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접수공간을 서비스공간으로 꾸며봅니다. 유리칸막이를 없애고 친근하고 편안한 응접실처럼 만듭니다. 목욕문화 상담 및 고객서비스를 위한 코너를 설치합니다. 목욕건강 관련 자료공간도 설치합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목욕건강, 목욕문화에 관해 꾸준히 공부하고 전문자료를 모으고, 정보를 정리, 제공합니다. 일단 목욕문화, 목욕건강, 피부관리, 휴식과 피로회복 등의 주제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여 개선, 개발, 혁신해야 합니다. 공유, 확산해야 합니다.

아기를 위한 목욕법, 중풍환자, 노인, 장애인에 위한 목욕보조법, 가정에서의 건강목욕법 안내

계몽홍보 활동, 목욕문화 뉴스레터 발행 : 끊임없이 공부해야겠지요

신체상태와 장애, 연령에 따른 목욕용품 정보제공, 상담

가정 욕실에 미끄럼방지타일을 깔고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노약자, 장애인에게도 편리한 제품들로 개조하는 방법을 상담하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온천욕, 삼림욕, 해수욕 등을 위한 단체 가족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합니다. 지역 복지기관과 협력할 수도 있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나 구청, 혹은 여행사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동복지기관이나 학교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목욕탕의 욕조는 모두 바닥면보다 아래로 들어가게 시공하고, 미끄럼방지 타일과 부상방지용 소재, 안전손잡이, 손기능장애가 있는 분들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수도꼭지와 샤워기, 키작은 아이나 장애인도 다룰 수 있는 샤워시설 등 장애인, 노인, 아동, 임산부 등 목욕약자들을 배려한 목욕시설과 용품을 갖추습니다.

탈의실에서 열쇠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현관 접수공간에서 이용료 수납과 함께 열쇠를 줍니다. 탈의실 근무자는 목욕복지, 목욕문화, 건강목욕을 위한도우미로 대체합니다.

탈의실에서 여성잡지와 신문과 TV를 추방합니다. 계몽 홍보용 비디오를 상영하고 목욕탕복지, 목욕문화 등에 유익한 자료들을 비치합니다.

중풍환자나 장애인, 고령자의 목욕을 위해 도우미, 자원봉사자를 활용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평범한 이웃사람처럼, 대중목욕탕에 함께 오시거나 자기집 욕실에서 목욕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때 이웃처럼 오가며 함께 할 수 있는 평범한 동네사람”을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근처에 사회복지 생활시설이 있다면 그곳 생활자들이 (한번에 한두명씩, 혹은 한 가족씩) 대중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물론 생활시설내에 목욕시설이 되어 있겠지만, 보통사람들이 대중목욕탕

는 뜻을 세우라고 합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들에게는 한달에 한번씩 업무 전폐하고 지역사회로 나가 총동원 홍보계몽활동을 펼치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일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캠페인,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개선하는 캠페인을 하라고 합니다. 18)

## 복지시설과 세상

“이제 교회는 교회보다도 세상을 더 잘 섬기는 크리스찬을 만들어내야 한다”

라디오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안에 각종 예배와 모임을 많이 만들어서 교인들을 교회에 붙들어놓고 세상을 섬길 기회를 주지 않으며 교회밖에 모르는 교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하셨습니다. 교회의 예배와 모임을 줄이고, 세상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세상을 교회보다 더 잘 섬길 줄 아는 크리스찬으로 훈련시켜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하지만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움 속에나 말 아래 두지도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세상을 비추려 함이요, 사람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입니다. 소금 또한 가마니나 항아리에서 꺼내어 세상에 뿌리고 녹여야만 부패를 막고 맛을 냅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크리스찬들이 교회안에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그곳에 초막을 짓자 했습니다만 그들은 오히려 산 아래 세상에 내려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찬송가에 “밤 깊도록 동산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어둔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또한 그러합니다.

뜻있는 사람들을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와 결연자로 복지시설에 끌어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보통의 직업세계와 일상생활속에서 복지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세상속으로 흩어내는 작업이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복지시설안에서 직접적인 서비스에만 매달려서는 안됩니다. 부단히 지역사회

---

을 이용하는 것과 같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서비스하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증진을 위해 특별한 목욕 이벤트를 기획합니다. 아빠들과 아들들이 함께 하는 목욕 이벤트! 프로그램이 생각납니까? 재미있겠지요?

목욕탕 주인이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이라면 그 서비스의 내용과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끊임없는 학습,연구를 통해 목욕 서비스를 개선, 개발, 혁신하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자기 사업에 근심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일을 통해 복지를 구현하는 (자비량)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보통의 직업을 가지고서 자신의 본업에 근심할 뿐 아니라 나아가 남을 돕기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 전문지식과 가치, 기술, 자원을 적용하여 개입하는 사람, 자비량 사회복지사!

목욕탕에서 활동하는 자비량 사회복지사를 그려봅니다.

18) 이에 관하여는 복지경영(<http://welfare.or.kr>) '복지관의 핵심방법론'을 참조하십시오.

와 상관하며 가급적 지역사회속에서 지역사회로써,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으로 풀어내기 위해 공작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Enabler/Engineer for Life of the Community, by the Community, in the Community*

일반 시장경제하의 보통의 직업세계에서 자기 사업에 근심하며 나아가 그 하는 일속에서 사회복지 전문지식과 기술·가치·자원을 적용하여 복지를 구현하는 자비량(自備糧) 사회복지사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시설에 안주하지 말고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지시설보다 세상을 더 잘 섬기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합니다. 복지시설안에서보다 시설 바깥 세상속에서 더 많은 복지를 이루어내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합니다.

복지시설에 사람들을 끌어들여 직접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것은 복지의 성을 쌓는 것입니다. 복지의 섬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사람들의 생활, 지역사회, 환경까지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보편적 복지의 세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복지의 섬을 만드시겠습니까, 보편적 복지의 세상을 만드시겠습니까?

*invisible, ubiquitous, normal, universal welfare for all* : 저는 이러한 복지를 *Natural-Fare*라고 부릅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권위에 머리를 숙이고 *sick role*을 해야만 하는 억압적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적 존재로 당당히 설 수 있게 하자는 것, 보통 사람, 보통의 소비자처럼 주체적 프로슈머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것이 *Natural-Fare*를 지향하게 된 정서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방식으로 대행, 대체하지 말고 최대한 보통의 것들속에서 보편적으로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공작하자. 복지를 특별한 것으로 모으지 말고 세상속에 보통의 것(*normal*)으로 흩어내자. 인간세상 사람사이에 자연스러운 살림살이가 되게 하자. 보이지 않으면서도 어느 곳이나 두루 스미어들게 하자. 이것이 바로 제가 갖고 있는 *Natural-Fare*의 이념입니다.